

“고덕 아파트 ‘택배대란’, 재연될듯”

“지상 출입 금지” vs “손수레로는 불가”

택배노조 “오늘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저택차량 이용 일부 택배사들도 동참

아파트 측 “바뀐 것 없다...현 방침대로”

배달 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와 전국 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 초와 마찬가지로 다시 ‘택배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택배노조는 이날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를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선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이 아파트 후문 입구 앞에 배달 물품 1000여개가 쌓여있는 ‘택배 대란’이 펼쳐졌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후문까지 나와 자신의 택배를 찾아가는 혼란이 연출됐다.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보도블록 훼손, 안전 등의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 방침을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택배 업체에서는 손수레를 활

용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라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 차량이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단지 안에서는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사비로 저택차량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택배노조는 이를 아파트 ‘갑질’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손수레 이용으로 아파트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보다 3배 더 증가하며,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로 이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까지 아파트 측에서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모든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통보했다. 저택차량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던 일부 택배사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을 못해 발생한 ‘택배 대란’ 현장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후문에 지난 5일 오후 지상주차장계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3m로 이보다 높은 택배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왼쪽은 지하주차장 입구.

문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아파트 측이 택배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이날까지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행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택배사 전체 움직임이 아닌 택배노조 차원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측

은 또 “택배기사들이 어느 정도 (택배노조의 방침에) 동참할지는 가능하긴 어렵다”고 했다.

택배노조 측은 “현재까지 아파트에서 온 연락은 없다”며 “기존에 예고했던 것처럼 14일부터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택배기사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아파트 입구 앞 ‘택배 대란’ 재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정기자

나주경찰, 학교폭력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김상철)는 8일 빛누리초등학교 중·후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회 간부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신학기에 학교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및 홍보물(영광판, 마스크 등)을 배부하였다.

김상철 나주경찰서장은 “언택트 시대에 맞는 다양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여수소방,소방시설공사분리발주지도·감독강화

여수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작년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분리 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축공사 시 함께 발주하고 발주받은 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부실공사의 운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뽑아내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이 2020. 9. 10. 개정되었고, 의무화 관련 법령 위반 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여수소방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발주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착공신고가 들어오는 전 대상에 대해 표본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수 여수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무안소방, 아동복지시설에 전기화재 대응 소화기 설치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8일 무안군 일로읍 소재 아동복지시설에 신개념 전기 국소화재 초기 대응용 소화기인 불이는 소화기 및 생활용품용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무안소방서가 2020년 전라남도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우수관서 부상 일부를 활용 불이는 소화기 및 생활용품을 마련하여 아동들이 안전 속에서 꿈을 이루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했다.

나운영 원장은 “평소 무안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아동복지시설 대표해서 무안소방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전남 ‘베스트 지구대’ 선정

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 왕조지구대는 전라남도경찰청 주관 2020년 4분기 ‘베스트 지구대’에 선정돼 전라남도경찰청 표창과 인증패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전라남도경찰청은 도내 지역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중요범죄 감소율, 공동체 치안활동, 탄력순찰 활동 노력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 성과를 받은 ‘베스트 지구대’를 선정하고 있다.

왕조지구대는 작년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간담회 개최, 협력단체 회원 SNS 활용 보이스 피싱 사례 홍보, 편의점 대상 기프트카드 피싱 예방을 위한 자체 홍보물 제작 등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금융기관 고객창구 스탠드 홍보물 비치 등 공동체 치안활동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주시체육회 보선 선거인단 구성 놓고 일부 단체 반발

“선거일 60일 전 등록단체만 추가 투표권 부여는 공정성 훼손”

시체육회 “체육회·변호사 자문 거쳐...단체 의견 수렴 하겠다”

선거인단 290명~310명 28일까지 구성...내달 13일 회장 선거

민선 첫 체육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체육회가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단체가 투표권에서 제외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3일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최소 290명·최대 310명을 구성할 계획이다.

선거인단은 광주 60개 종목단체장과 5개 자치구체육회장, 5개 자치구 종목단체 100명 등 총 165명이 우선 구성된다.

나머지 선거인단은 보궐선거일 60일 전에 선수등록된 종목에 한해 추가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등록을 마친 종목단체를 중심으로 각 단체 구성원 수에 따라 추가 투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놓고 일부 종목단체는 추가 투표권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갑작스럽게 처리되는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 대다수의 종목단체들이 투표의 기회

를 빼앗기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일 60일 이전 등록 규정에 의하면 지난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갑자기 처리되는 보궐선거를 고려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취소돼 선수 등록마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며 “정회원 60개 중 27개 종목단체만 선수등록이 이뤄졌는데 이 중에서 13개 단체에만 투표권을 추가 부여하는 것은 추후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60개 등록 단체에 골고루 투표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광주 도심농지에서 81mm

박격포탄, 대공용의점은 X

광주 도심의 농경지에서 박격포탄이 발견돼 군·경이 출동했으나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북구 매곡동의 밭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군 폭발물 처리 부대와 현장으로 출동, 접근을 통제한 가운데 제원·폭발 가능성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발견된 포탄은 81mm 박격포 연습탄으로 추정되며 뇌관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별다른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원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